



대형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령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লেখক: 권지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 묻는 이에게> 담당자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88호

서기 2002년 9월 25일 수요일 17

법공양 페이지

우리들 사는 것이 바로 불법이며 참선

여러분과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모르며 애타는 고통과 쓰러진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즐거워도 하지만 바람결같이 잠시 잠깐 돌아가고 고통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혀 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이렇게 한자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만 인생을 올바르게 걸어가는지 또 어떻게 걸어가야만 올바른 길이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길을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예를 들어서 한마디하겠습니다. 육조스님께서 오조 홍인선사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죠. "불성이 스스로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내 불성을 어찌 알았으리까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불성이 스스로 그림자지 않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체의 생활에 걸리지 않음을 어찌 알았으리까 이겁니다. 그 다음에 "불성이 스스로 일체 만법을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요건 알아듣기 쉬우라고 조금 보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체 만법을 스스로 들이고 내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이겁니다. 그것을 종합한 것이 이 세상 이치를 종합한 거, 즉 말하자면 삼천대천세계 우주 천하가 다 근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직결돼 있는 나하면 마음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다 이겁니다. 천지의 근본은 마음의 근본이 아니라, 태양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요, 시공이 없이 돌아가는 이치의 진리는 인간의 마음의 근본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마음공부를 하는 데는 대승 소승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 하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듯이 그냥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라는 두 글자가, 우리 한국에서만 사람이란 글자를 쓴다고 합니다. 육조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는 그 마음, 청정한 마

이며, 그대로 행선입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물 마시는 데 무슨 이론이 거기 들어갑니까? 거기 무슨 이의가 붙습니까? 비행기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는데 거기 먼지 앉을 게 뭐 있습니까? 이것을 잘 판단해서 여러분의 몸과 가정과 사회·국가·세계적으로, 아니 우주적으로 손아귀에 넣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원동력을 길러서 원심력으로서...

즉 말하자면 부모라는 가설이 되어 있고 자식이라는 가설이 된 겁니다. 전기 스위치 올리니까는 거기까지 다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것이 바로 만법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편한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따지고 이게 옳으나 그르냐는 이유가 어디 붙겠습니까?

예전에 뉴욕에서 환자 분이 부축을 받고 왔습니다. 십 년이나 앓고 있어서 힘들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아프면서도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그래도 죽기가 안 떨어져서 서울까지 나왔습니다. 와서 날려라 '이 병이 10년이 가도 안 낫습니다.' 하길래 이렇게 물었습니다. '병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나한테 내놓는다면 병을 고쳐주려.' 그랬더니 그 길로 가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 사람 생각이 말입니다. 거기서 딱 드러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한생각으로 인해서 자기를 구덩이도 넣을 수도 있고 한생각으로 인해서 구덩이에서 자기를 건져낼 수도 있는 마음의 도리, 한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꿈을 꾸고도 잘못 꿰었으니까 오늘 조심해야지, 이것 참 나쁜 꿈인데.' 하고 걱정 근심을 하면 꼭 나쁘게 돌아갑니다. 독 안에 들

무리 좋은 말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색경에 비치는 그 그림자가 나일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어느 어머니가 자식을 잃고 물어 줄 사람도 없으니까 갖다가 묻고서는 영영 울고 앉았는데, 금방 묻는다 하더라도 손으로 팔 수도 없고 그래서 나무 가장구를 꺾어서 놓고 포대기로 들들 말고선 거기다가 술 이파리로 덮어놓았습니다. 땅이 얼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죽은 아이가 또 죽다고 자기의 두루마기를 벗어서 더 덮어주면서 어머니는 영영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이 가시다가 그걸 봤습니다. "왜 부인께서는 이렇게 우십니까?" 하니, 행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행이든 육신의 행이든 똑같은 얘기도, 행이 없으면 그건 부처님 법이 아니라 죽은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왜 우느냐고 하니깐 "먹을 게 없어서 남편은 일하러 갔는데 이렇게 9대 독자가 죽었습니다." 하고 울 거든요.

그런데 이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죽을

림애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앞에 다시 안겨주고 그 스님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환상천 불사천 무명천으로 돌아오니 보니까 모든 것이 실존한다는 거를, 생전에 불이 뜨겁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불사천에 불이 활활 타는 걸 보면 뜨거워서 지나가지 못하고, 물에 빠지면 죽는다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 의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못 건너가는구나, 거길 넘어가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하하 웃었답니다.

마음은 채가 없다고 수처에 말했습시다. 채가 없는 마음은 실존하지 않는 그림자에 놀래서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잠재 의식의 판단이 왼쪽에 있고, 바른쪽에는 지금 현상세계의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끝수에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다니게, 즉 말하자면 한데 합쳐서 쓸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기까지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놓아야만 됩니다.

악도 놓고 선도 놔라. 동서가 들어 아니

다닐 수 있고, 내 주인공만이 내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내 주인공만이 이 세상의 만법을 들이고 낼 수도 있다. 틀이든 두드러지지 않고 내면 줄지도 않는다는 거죠.

각각 용도에 따라서 모습을 내놓으면서 천백화신이 나올 때 그것이 마음으로서 나타나니까 어디 손 안 닿는 데가 없고, 안 보는 데가 없고, 안 듣는 게 없다는 얘기도. 32용신으로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모습을 바꾸어서 응해 주시고, 아프다면 약사로 나타나 주시고, 가난하면 관세를 보살로 나타나 주시고, 산신으로 나타나 주시고, 지장으로 나타나고 수없이 나타나시는 그 마음이 한 군데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악업 선업이 따르는 화가 나게 했다. 화가 지독하게 나게 하면 화왕지옥이요. 선하게 나왔다 약하게 나왔다 하면 선천만별로 마음을 쓰게 하는 수십 억의 그 생명들의 마음이 악업 선업으로 인과가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안에서 일어나고 바깥에서도 들어오고 하는 거를 어떻게 중간에서 해결을 하느냐는 겁니다. 안의 그 모든 마음들을 같이 한마음으로 끌리면서 가지고 있는 내 지배인의 마음, 또 그 마음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안에 있는 것이 들랑거리면서 들어오는 것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두서 없이 나오는 병, 두서 없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테레비를 보고 연극을 가서 보시더라도 주인공 죽는 법은 없습니다. 안 그럴

천궁행하는 데에 역점을 둘 것이니라. 실천을 하는 실천궁행이 아니라면 부처님 법이 아니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때로는 아리송하고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지만, 계율이 350개가 있고 280개가 있지만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단 오세 십세도 못 지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왜? 계율을 지키기 이전에 나 하나만 죽는다면 계율이 다 떨어지죠. 나 하나만 죽는다면... 그래서, 이게 잘 들으십시오. "모든 착을 보라, 하는 거. 모든 것은 주인공에 맡겨놔라 하는 겁니다. 첫째, 맡겨놓으니 습이 떨어질 것이고, 습이 떨어지니 나를 발견할 것이고, 나를 발견하니 모든 것을 하나도 버릴 게 없을 것이고, 하나 버릴 게 없으니 틀이 아닐 것이고, 틀이 아니니 틀이 아니게 나를 것입니다. 이 모두가 바로, 그것도 이듬해서 대도니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 주인공에 놓는다. 참으로 놓는 데에 대해서 너무나 여러분한테, 이것은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것이 아니다.' 하고 다 가셔도 할 수 없는 거고... 나는 그렇습니다. 이년까지 그렇게 살아 왔으니까, 갈 데만 가고 올 데만 오고 자유니까, 이게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져 나와야지 대도를 이루지, 만약에 스스로가 아니고 누가 하래서 한다면 이견 강제성을 띠었기 때문에 망상에 고달립니다.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렇게 할 게 뭐 있습니까. 못났든지 잘났든지 석존이 여기 계신다 하더라도 석존의 마음을 꿰뚫어 보려면 내 맘부터 알아야 석존의 마음을 꿰뚫어 보죠. 내 집의 전화부터도 나와 남의 집에 전화도 할 수 있고 전화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나부터 알기 위해서 나에게 모든 걸 일임해서 믿고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석존께서도, 어느 신도가 아파

순간순간 화해서 돌아가니 고정됨이 없는 찰나생활

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개별적인 대(對)가 없는 것을 청정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한마음을 청정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 걸 일러 드리겠습니다.

"공(空)이 색(色)이요, 색이 공(空)이냐" 한 것은, 고정됨이 없이 찰나 생활을 하는 것을 공했다고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화(化)해서 돌아가니. 우리는 화해서 찰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정됨이 보고, 고정됨이 들고, 고정됨이 가고 오고, 고정됨이 먹고, 고정됨이 만나면서 머물러 있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진리요, 길이요 참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승 소승이 없습니다. 왜? 간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밥상을 차리는데 접시도 있고 종지도 있고 사발도 있고 대접도 있습니다. 손님이 많이 올 때는 큰 접시에 음식을 다 차려놓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승 소승이 있을까요? 여러분! '종지는 못 쓰고 대접만 쓴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종지만 가지고 어떻게 상을 차리며 큰그릇만 가지고 어떻게 상을 차리며, 접시만 가지고 어떻게 상을 차립니까?

일체 만법을 일심(一心)으로서 들이고 낼 때에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몽땅 걸리지 않게 버려서 몽땅 갖추어 가지고 있게 만드는 실천궁행하는 법입니다. 실천이 아니라면 부처님께서 정법을 가르치지 않았을 겁니다. 이론으로만 광만대장경을 달달달 외우고 위로 피고 옆으로 편다 하더라도, 아주 목마를 때 시원한 물 한 그릇 마시는 것 보다 못합니다. 이거를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는 이차로 생각할 바고, 진짜 배고프고 목마를 때 냉고과 문을 활 열고 물 한 그릇 꼭 마시고 난 뒤에야 죽고 사는 게 생각이 나느니라.

이것이 그대로 찰나의 행이요, 중용이요, 우리들 사는 것이 바로 불법이요 참선

에도 못 면합니다. 우리 살림살이는 시공이 없이 돌아갑니다. 머물러져 있지 않아요 안되는 것도 한참나오, 되는 것도 한참나오. 그러니 나를 깨우치기 하기 위한, 금방 좋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믿으란 말입니다. 못났든 잘났든 자기 자성을 믿지 않는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허공을 믿겠습니까, 이름을 믿겠습니까, 형상을 믿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를 믿을 겁니까?

그리고 착을 때리는 건, 여기 제주의 여러분은 부처도 씨다 불이고 잠된다 못된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듣고 기복으로 많이 다니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녹여버려라 하는 것은, 찰나의 생활이니까 잘못된다 잘된다를 떠나서 모든 걸 주인공,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벌어졌습시다. 내가 있으니까 가정도 있고, 우주도 있고, 부처도 있고 그렇지 내가 없으면 다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믿지 않아요? 나부터 알아야! 모두 각자 나부터 알아야 나를 주기도 하고 보살행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깁니다. 원심력이 생겨요. 아주 좋은 공부입니다. 그래서 두루 모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심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질적으로 수억 겁을 거쳐 나오면서 인간이 되기까지 진화되면서 살아온 그 습, 인간이 됐으니까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습을 떼려면 '용광로와 같다. 내 주인공은 일체 우주와 천지가, 태양, 모든 혹성과 별들이 모두 다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으니 직결이 돼 있는 내 주인공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가정만이 아닙니다. 사회도 내가 마음 먹는 대로 직결되게끔 돼 있으니까 나부터 알게 되면 차차 실험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나를 진심으로 믿게 되고, '야! 나 뿐이 아니로구나! 일체제물과 일체 조사들이 다 직결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깨우치지 못하면 아



그림 · 최주현

때가 돼서 죽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거기 앉아서 '보살님! 이 촛불이 꺼질 때까지 깨십시오. 이 촛불이 꺼지면 나는 오지 못합니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그냥 삼매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어떨 것나 하면 환상천을 들르고 무명천을 들러서 불사천에 있는데 그 애 이름이 안 나와 있는 겁니다. 불사천을 거쳐서 생사천에 가야 이리로 천도가 다시 되든지 벌로 되든지 하는 데 아! 불사천에 이들도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으니까 이 스님이 거기 관리인을 찾았습니다. 알른 쉽게 말해서 사천왕을 찾았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여기는 들어와 있지 않으니 무명천에 가 보라고 무명천에 가면, 즉 말하자면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와 있으니까 거기 가 보라고 하길래 거길 가서 관리인한테 어린이에 영혼을 받아 가지고, 참 그만큼 직결돼 있는 공부야 돼 있기 때문에 자유자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못하죠. 그래서 혼백을 다시 가지고선 왔습니다. 나오다 보니깐 초가 요만큼 남아서 달랑달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혼백을 찾아 가지고 와서 다시 넣으니까 그 이

요, 남북이 들어 아니다. 여자와 남자가 들어 아니요, 어린 애가 들어 아닙니다. 아이에게 스승이라고 부르라고 하니깐 "저렇게 어린애더러 어떻게 스승이라고 부르니까?" 먼저 늙었기 때문에 그러하나라." 했다는 것과 같이 시공이 없는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스님네들은 애쓰셨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먼저 늙었겠습니까? 애는 늙어서 다시 또 왔으니까요. 하하하. 어떻습니까? 두루 돌이아니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영령들은 수만 개가 있어도 영령일 뿐이지 너나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무역무(無亦無)라는 말을 했죠. 마음의 자기발전소에는 꺼졌다 켜졌다 하는 도리가 없습니다. 자기발전소에는 꺼진다 켜진다는 게 없기 때문에 대승 소승이 없다 이겁니다.

또 마음의 용광로를 표현을 했는데 용광로에다 적든지 크든지 다 놓는 작업만 한다면 자동적으로 재성해서 자동적으로 나간다는 얘기도. 여러분에게 예를 쓰라고 하는 거는 자동적으로 돼 나가는 거니 걱정하지 말고 놓는 작업만 해라 이겁니다. 내 주인공만이 나를 고칠 수가 있고, 내 주인공만이 나를 형성시켜서 이끌고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전져낼 수도 있는 한생각

까요? 주인공 죽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겁니다.

그 참, 대법(大法)을 가지고 계신 불보살님들 역대 조사들을 생각하면서 남의 나무에 과실이 잘 열리고 만 가지 맛이 나고 무르익어도, 내 나무에 열린 거는 우습고 내 나무에 열린 거는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합니다. 잘 가꾸어서 무르익게 만들어서 만 가지 맛이 나게 한다면 남도 주고 나도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나무에 잘 열렸다고 해서 그거를 먹으려고 애를 쓰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런 얘기가 있죠. 예전에 어떤 큰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시다. 자기 제자더러 하는 소립니다. "저 마을에 내려가니까 말이야, 줄에다가 고기 덩어리를 익혀서 냄새나는 것을 막 묶어놓고 말이야, 그 묶어 놓는 거기에 개를 눈을 가려놓고 코에다 대주니까 장난들을 하는데 냄새는 좋은 냄새가 나는데 눈을 가렸으니 그 개는 눈 가려진 것부터 끌려야 그걸 먹을 텐데, 자기 눈 가린 거는 모르고 그걸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냄새 나는 것만 먹으려고 이러 땡굴고 저러 땡굴고 이러 쓰러지고 저러 쓰러지면서 온통 애를 쓰니 얼마나 우습던지, 내가 올 때도 웃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스운데 너는 우습지 않느냐?"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가 가만히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큰스님께서 지금 저러 들어보라고 그러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니깐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우스워서 죽겠다." 하니깐 "내 눈부터 띄우고 내가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행하는 것을 지금 알라는 뜻인데, 만약에 그걸 모르면 내 눈을 뜨지 못하는 격입니다." 하니깐 "같은 게 아니라 그러니라." 하거든요. "누구든지 저부터 알아야 제 눈이 뜨지고 제 귀가 뜨지고 모든 것을 실

서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석존을 한번 빌기를 원했죠. 근데 몸은 일으킬 수가 없고 아파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한번 들려 주셨습시다. 그랬는데 몸 일으키려고 좀 부축해 달라고 하니깐, "몸이 네가 아니니라. 몸을 구할 한 쪽과 같고 꽃이파리 한 쪽과 같고 가을에 가랑이 하나 떨어지는 거와 같고 바람결 같으니라. 인생은 물 흘러가는 듯 하다. 그러니 네 몸을 일으킬 생각은 말고 네 마음이, 그렇게 지극하게 나를 보고 싶었던 그 마음이 바로 참다운 네 마음이요, 부처님의 마음이요, 부처님 뜻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니 네 마음이 정히 그렇다면 내 마음을 보라. 내 육체를 볼 생각을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보라. 네 마음을 그렇게 지극하게 볼 수 있다면 내 마음을 볼 수 있느니라." 하시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허허, 일평생에 부모형제 자식의 착을 놓지 못하더니 결국에 네 집도 착을 놓지 못했구나. 오늘부터 네 집의 착을 놓아라." 하시면서 "일평생을 이 몸을 집을 삼아서, 더우면 더운 대로 시원한 걸 입혔고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운 걸 입혔고, 아끼고 쫓기고 맛난 걸 먹이고 신 거는 버리고 좋은 거는 먹이고 했건만 내가 지금 간다 하더라도 네 몸통은 너를 따라갈 수 없느니라." 하셨듯이 그 모든 것에서 착을 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착을 떼어야 한다고 재산을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인공이 이끌어주시는 거 다 하고 딱 맡겨놓으면 떼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를 배신했다 할 지라도 따뜻하게 해준다. 바깥에서 추우면 따뜻한 데로 고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도 나중에는 효자가 되고, 정말이지 인간의 도리를 알아서 탐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의 자식이 될 겁니다.